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가 다가왔다. 연일 이어지는 내란 재판, 미국과의 관세협상, 정치권의 소모적인 정쟁 등 무거운 뉴스를 뒤로 하고 7일간의 긴 연휴 동안 모처럼 한 자리에 모일 가족·친지·지인들과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됐으면 한다.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한복을 곁에 차려입은 아이들이 선물 꾸러미를 들고 행복한 추석 한가위를 기원하며 활짝 웃고 있다. /김애리 기자

“가족과 함께할 여유로운 연휴…벌써부터 설레요”

공향·터미널·송정역 ‘이른 귀성길’

최장 10일 연휴…양손 가득 선물
국정자원 화재 여파 택배 줄이어
공항엔 가족·연인 등 여행객 북적

“이번 추석 연휴에는 아무 걱정 없이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싶습니다.”
추석 연휴 시작이 이를 남은 1일 오전 10시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은 이미 이른 귀성길에 오르는 이들로 붐볐다.
무화과·배·사과 등 과일상자와 김치, 전복, 각종

반찬이 담긴 스티로폼 박스를 든 귀성객들은 버스 출발 시간을 확인하며 탑승구로 발걸음을 옮겼다. 비교적 날씨가 따뜻해 반팔과 얇은 셔츠 차림을 한 귀성객들의 얼굴에는 가족을 만날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다.
버스를 기다리며 전화를 하던 한 귀성객은 “이제 곧 버스 타 나도 빨리 보고 싶어, 엄마”라며 환하게 웃었다. 인근에 있던 다른 시민도 “너 좋아하는 장조림이랑 반찬 챙겼어, 두 시간 정도면 도착할 거야”라고 다정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서구 금호동에 사는 김영옥(60대·여)씨는 “딸이 목포에서 일하는데 비해서 얼굴 보기가 쉽지 않다”며 “지난 설에는 딸이 집에 왔는데 이번엔 내가 내려가기로 했다. 추석 연휴가 열흘이나 돼 마음이 여유롭다.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맛집도 다닐 계획”이라고 미소지었다.
고향으로 향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가족을 맞이하러 온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버스 1대가 도착하자 한 어르신은 입구로 달려가 “아들”을 외치며 자녀를 힘껏 끌어안았다.
중합버스터미널 내 화물통합센터에는 택배를 보내려는 긴 줄이 생기기 시작했다.
남구 진월동 주민 이명우(50대)씨는 “서울에 있는 딸에게 반찬을 보내야 하는데 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우체국은 생물 택배를 받지 않고, 다른 택배 회사들도 물류가 밀렸다고 해 급히 서울행 버스를 이용해서 보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광주송정역 대화실도 일찌감치 고향행을 서두르는 시민들로 가득했다. 양손에 쇼핑백 등을 든 귀성객들은 열차 시간 전광판을

확인하며 플랫폼으로 향했다.
열차를 내고 광주에 온 박모(30대)씨는 “최근 국가 전산망 차질로 인해 열차 이용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기우였다”며 “연휴가 길어 가족, 친구들과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생각이다. 기분이 좀 들뜬다”고 웃었다.
광주공항엔 여행을 떠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전광판에는 제주행 비행편이 줄지어 표시됐고, 라운지 곳곳에서 가족·연인 단위 승객들이 웃음 띤 얼굴로 수속을 기다렸다.
박모(40대)씨는 “조카가 곧 군에 입대할 예정이어서 친척들과 함께 3대가 여행을 간다”며 “모처럼 긴 연휴 덕분에 가족들이 한데 모일 수 있어 너무 좋다”고 활짝 웃었다.
/주성학 기자·이연상·서형우 수습기자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2일(목) 15/27°C	3일(금) 7/17/24°C	4일(토) 17/28°C
5일(일) 21/28°C	6일(월) 20/28°C	7일(화) 19/28°C
8일(수) 16/27°C	9일(목) 16/28°C	3~9일차 신문 쉽니다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건립 정상 추진”

市 “방직공장터 주상복합개발과 무관”
현대백, 당초 계획대로 이달 말 착공

광주시는 1일 “초대형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건립 사업은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내 주상복합개발과는 별개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시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최근 대우건설의 주상복합개발 사업 포기 소식에 따라 동일 부지 내에 추진 중인 ‘더현대 광주’ 건립도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주상복합개발 사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더현대 광주’의 경우 현대백화점그룹이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공사 선정 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시공사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착공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광주시와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 7월 더현대 광주 착공보고회를 열고 올해 10월 말 착공 일정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더현대 광주’는 연면적 27만2천955㎡(8만2천509평), 영업면적 10만800㎡(3만2천724평)에 달하는 초대형 복합쇼핑몰이다. 이는 광주 도심 최초의 대규모 민간 복합문화상업시설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도시 이용 인구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담당 부서와 자치구 등이 참여하는 신활력행정협의체를 구성, ‘신속·투명·공정’ 3대 원칙에 따라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
교통영향평가, 경관·건축 심의 등 통상 19개월이 소요되는 절차를 11개월 만에 마무리하며 착공 일정을 앞당겼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시민들에게 약속한 일정대로 현대백화점그룹이 추진하는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는 현재 이상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심형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광주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한가위 특집 지면 안내

▶스타브랜드-‘대명엘리베이터’	8면
▶‘백운광장 미디어월’ 실감콘텐츠 향연	9면
▶환자 중심 철학...동행재활요양병원	10면
▶‘천년 숲’...담양의 가을을 마주하다	11면
▶지방행정 혁신의 본보기 ‘광주시’	12-13면
▶광주·전남 추석연휴 종합대책	14면
▶2025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엿보기	15면
▶추석연휴 광주·전남 가볼만한 곳	16-17면
▶박계영의 추석 전통음식 ‘송편’	18면
▶내년 첫 FA 맞는 KIA 내아수 박찬호	19면
▶추석연휴 TV프로그램	20-21면

2025. 10. 8. 수 ~ 10. 12. 일
영산강정원 일원

나주농업페스타
10. 8. ~ 10. 12.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
10. 8. ~ 10. 29.

MBN 전국 나주 마라톤대회
10. 12.

[출연가수]

송가인

박지현

김용빈

최정원

김호영

린

영산강의 새로운 이야기
지금 다시 시작 시즌 2

나주 영산강 축제

주최: 나주시 | 주관: 나주영산강축제추진위원회